

미국 NAESCO 연례 회의 참관기

저희 에너지솔루션즈는 금년이 설립된 지 만 3년째가 되는 아직은 신설회사지만, 한국적 상황에 맞는 ESCO사업과 병행하여 ESCO사업의 모태라 할 수 있는 미국의 ESCO사업의 장점을 접목하기 위하여 금년 5월 미국 ESCO 협회인 NAESCO에 국제 회원 자격으로 회원가입을 하게 되었습니다.

회원 가입 후 상견례로서 첫 번째가 되는 금번 제 17회 연례 회의에 참석하여 보고 느낀 점을 간략히 기술하겠습니다.

먼저 금년 연례회의는 로스엔젤레스(LA)에서 승용차로 약 서너시간 걸리는 팜프링스에서 열렸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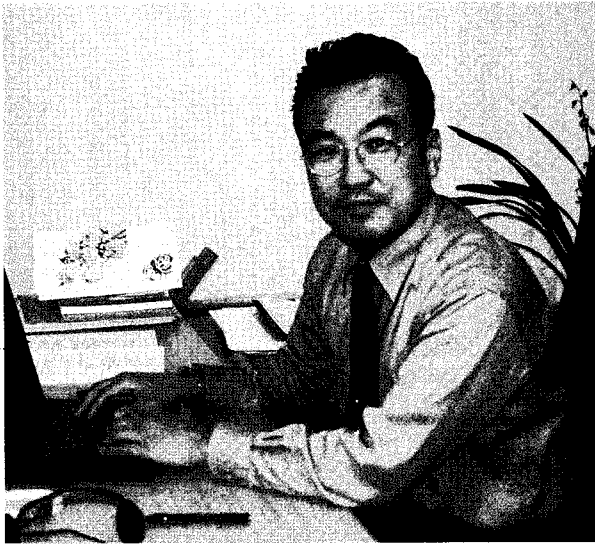
미국방식의 회의라 그런지 아니면 같은 회원사라도 여러나라 또는 여러지역에서 온 초면의 회원들을 배려해서인지 정

식 회의는 11월 15일부터 17일까지였습니다만, 14일 오후에 각자의 취미를 고려하여 참가자들을 골프와 테니스 시합을 함께 하게 함으로써 친밀감과 유대감을 갖도록 하는 세심한 출발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15일부터의 회의는 기술분야, 국제분야에 있어서 금융과 인터내셔널 마켓 등에 걸쳐서 진행이 되었습니다.

제가 미리 회의의 진행 방식이나 정보를 알고 회의에 참석하였다면 보다 밀도있게 참석 범위나 대상을 사전에 준비하여 효율성을 높일 수 있지 않았나 하는 아쉬움이 있어 내년에 참가하실 분들을 위해 본 회의의 주제들을 우선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술분야에 있어서는 1) 사용 에너지 관련 정보 및 데이터 가치의 최적화 2) 건물 보온 보냉 관련 통합 기술-보온 보냉으로 하는 에너지절감의 최적 방법 3) 절감량 측정의 정확한 계수화 등이 있으며, 국제관련 분야에 있어서는 1) 국제 ESCO 프로젝트에 있어서 리스크 회피와 금융조달 증대 방안 2) 태국, 브라질, 일본, 대만 그리고 영국에 있어서의 ESCO사업 기회 등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기타 분야에 있어서 1) 에너지 효율성의 경제적 가치에 대한 제고 2) 에너지 절약에 관한 새로운 기술을 시장에 접목시키고자 할 때의 충격과 딜레마 3)



이범용 사장 · (주)에너지솔루션즈

환경 규제가 ESCO 시장에 미치는 영향 등에 관한 발표가 있었습니다.

위의 주제들 만을 보더라도 우리 국내 ESCO에게 얼마나 필요하고 현실에 직접적으로 응용 가능한 내용들이 논의되었고 또 앞으로도 논의될 것인가를 느끼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위에 논의되었던 주제들에 대한 내용들을 주제별로 상세히 번역하여 협회지를 통해 순차적으로 발표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미국 NAESCO 연차 정기 회의를 참석하고 돌아와 느낀 점을 간략히 말씀드리고자합니다.

국내 사용 에너지의 전부를 외국으로부터 수입 사용하고 있다 말하여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수입의존도가 절대적이며 또한 에너지 소비증가율이 부끄럽게도 세계 8위(97년 기준)인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ESCO사업은 어느 개인 사업자의 이익 창출만을 위한 비즈니스가 아니라 우리가 지금까지 소홀히 하여왔던 에너지 절약사업을 통한 애국사업이며 우리보다 자연환경에서나 ESCO역사에 있어 훨씬 앞선 나라에서도 각광을 받으며 성장하는 유망 사업이란 확신을 가졌습니다.

또한 ESCO역사가 긴 미국과의 기술적 사항 및 다각화된 금융기법 등의 도입은 필수적이라 생각되며 미국에서의

ESCO 관련 사업도 에너지 관련 기술만이 아닌 오히려 파이낸스의 비중이 우월한 파이낸스 앤드 테크놀로지(FINANCE & TECHNOLOGY)사업의 개념이 보다 정확하다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우리 ESCO 업체들도 기술 개발 뿐만 아니라 회사의 현금 유동성 및 보다 다양한 자금 조달방안 등에 관한 연구와 실행이 절실하다고 느낍니다.

저희 회사는 앞으로도 미국 NAESCO 관련 회의나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앞으로는 단독으로 참여하는 것보다 관심있는 몇 개사가 함께 참여하여 각자 역할을 분담하여 수집한 정보 등을 취합 분석하여 공유하는 것이 보다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같은 목적을 가지고 사업을 하는, 어떻게 보면 화합할 수 없는 경쟁자들이 서로 격의 없이 정보를 나누고 친목을 도모하며 오히려 시장의 규모를 키워서 상생하는 멋진 게임을 보고 왔다는 말씀을 마지막으로 드리며 저의 두서 없는 미국 NAESCO 연례회의의 참관기를 마무리 지으렵니다.

감사합니다.

제안을 받습니다

ESCO협회에서는 고유가 시대를 맞아 ESCO의 사업확대 및 위상제고를 위하여 회원사들의 의견을 모으고 있습니다.

효율적인 에너지절약 방안과 ESCO사업 발전을 위한 제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하여 기탄없는 의견을 환영합니다. 회원사 여러분의 많은 참여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협회 사무국 : (02)728-4401 ~2

